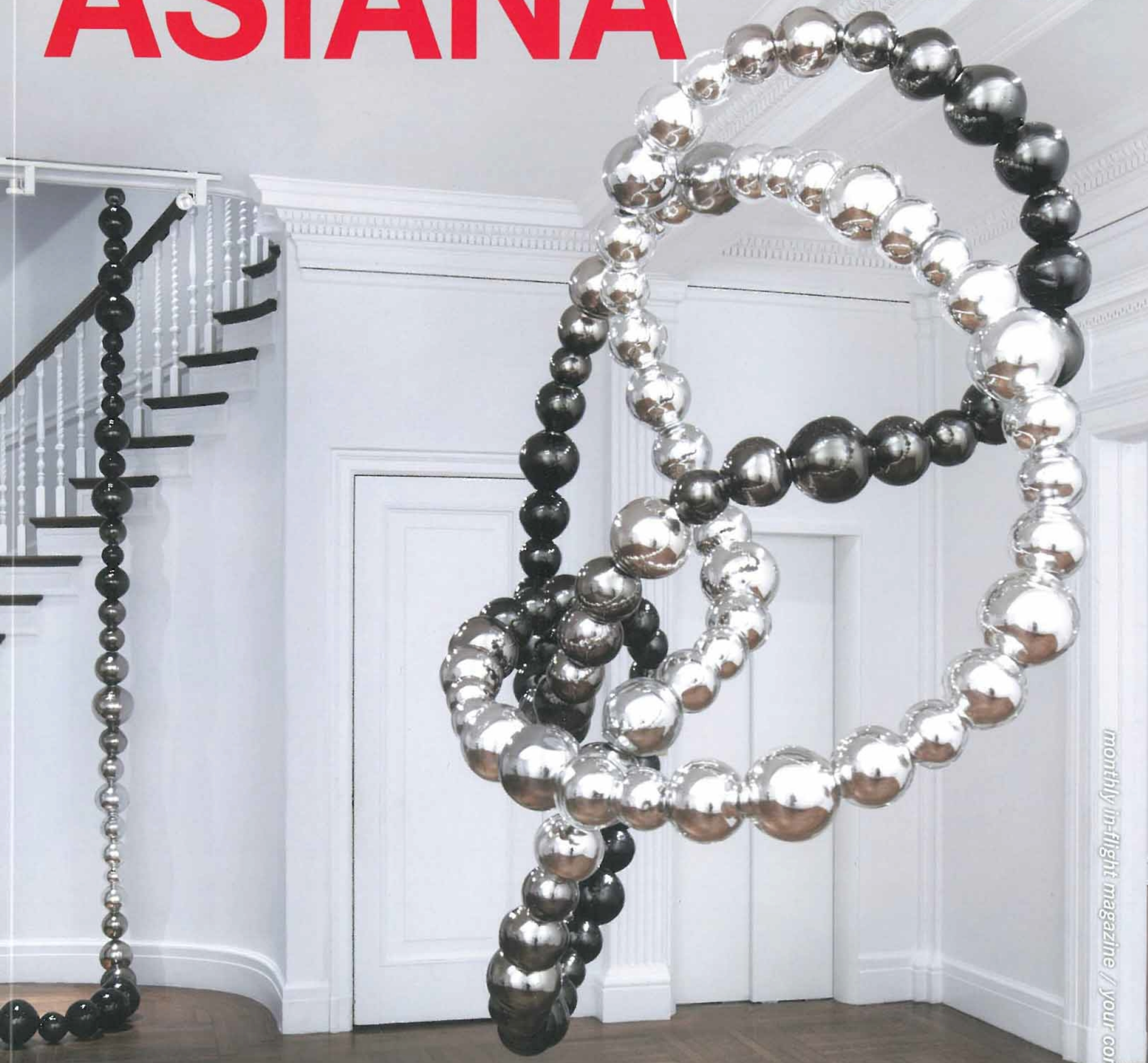


# ASIANA

CULTURE / STYLE / VIEW  
DECEMBER 2013



monthly in-flight magazine / your complimentary copy

## We are Travel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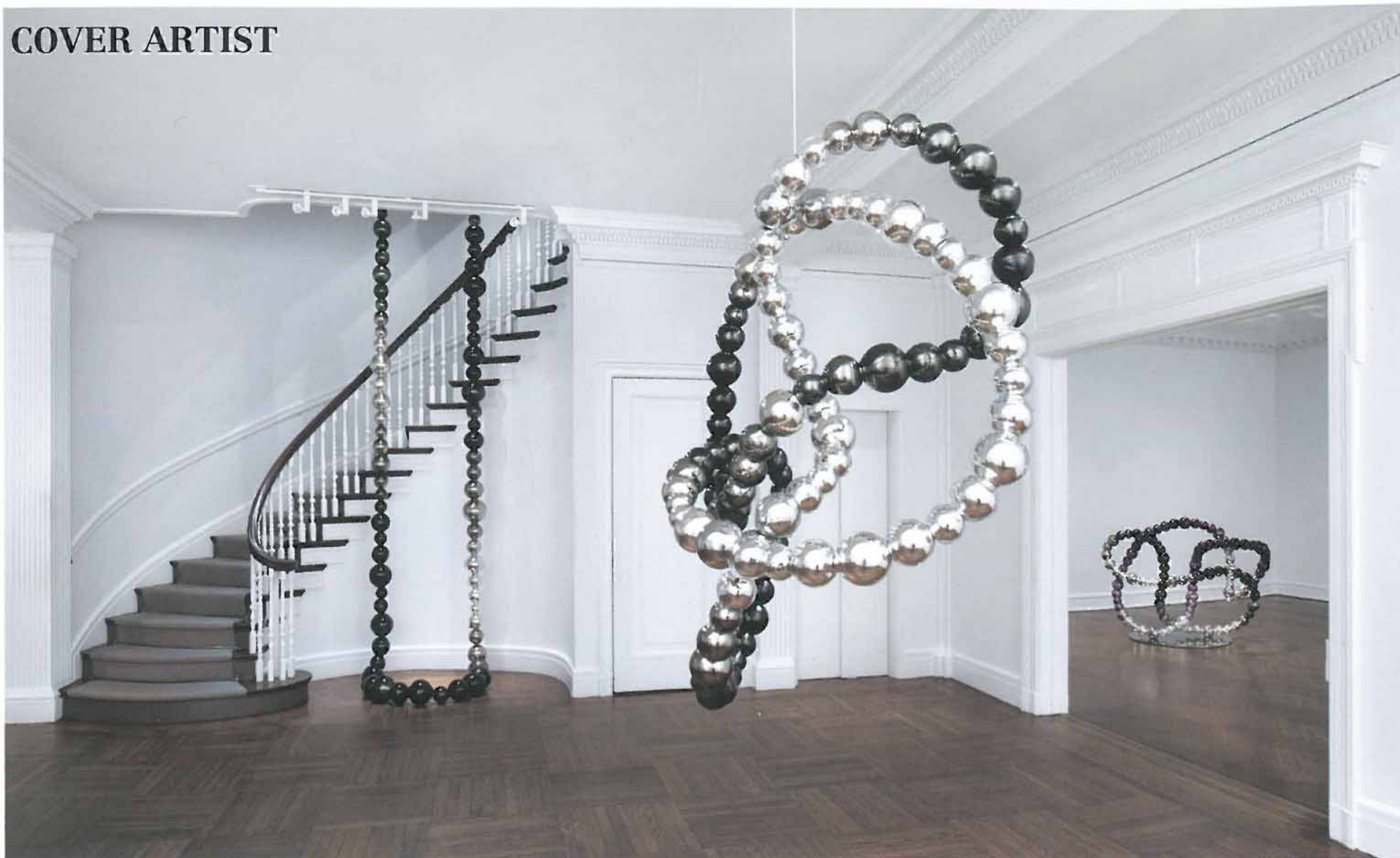
300<sup>th</sup> Anniversary Special

**AIRLINE**  
of  
**THE YEAR**

*2013 Top 100 Airlines*  
2012 Business Traveler\*  
2012 Premier Traveler  
2011 Global Traveler  
2010 SKYTRAX  
2009 ATW  
(\*Best Overall Airline in the World)

**ASIANA AIRLINES**

A STAR ALLIANCE MEMBER



# Jean-Michel Othoniel

In the art of French artist Jean-Michel Othoniel, glass that refracts and magnifies light becomes an instrument for transforming sadness into ecstasy. Text Han Yeah-joon

*Gigantic Necklace*, 2012, *Black Knot*, 2012, Chanel collection, *Black and Purple Knot*, 2012  
View of the exhibition "Othoniel", L&M Arts, New York, United States, 2012

〈거대한 목걸이〉, 2012, 〈블랙 매듭〉, 2012, 샤넬 컬렉션, 〈블랙과 퍼플 매듭〉, 2012  
'오토니엘' 전시 전경, L&M 아츠, 뉴욕, 미국

Coming across the works of Jean-Michel Othoniel (b.1964~) without being given any contextual information, one might sense that these colored Murano glass sculptures, however beautiful, seem to have a fleeting quality, like a dream, without provoking any emotional empathy. And though they may even appear glittery on the surface, once making the discovery that Othoniel's works are imbued with feelings of sadness, their sparkle may start to look more like eyes quivering with melancholy.

In his youth, he loved a man who wanted to become a priest and had the horrific experience of seeing his lover, torn between love and religion, at last choose a tragic end. This trauma led Othoniel to regard art as a means of healing. The glass sculptures in the form of a necklace of beads seem

organic and reminiscent of proliferating cells, expressing his interest in how things change and shift from one condition to another. What made him an overnight sensation was his work *Le Kiosque des Noctambules*, installed at the entrance to the Palais Royal - Musée du Louvre metro station in 2000 to mark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Paris subway system. After this, he continued to work on monumental projects that engaged with historical locations, developing his works into visual objects designed to heal the wounds of the place of exhibit. He is currently preparing a permanent installation work for Water Theatre Grove in the Palace of Versailles, created in the 17th century but destroyed by a storm in 1999. Three delightful fountain sculptures will be unveiled in September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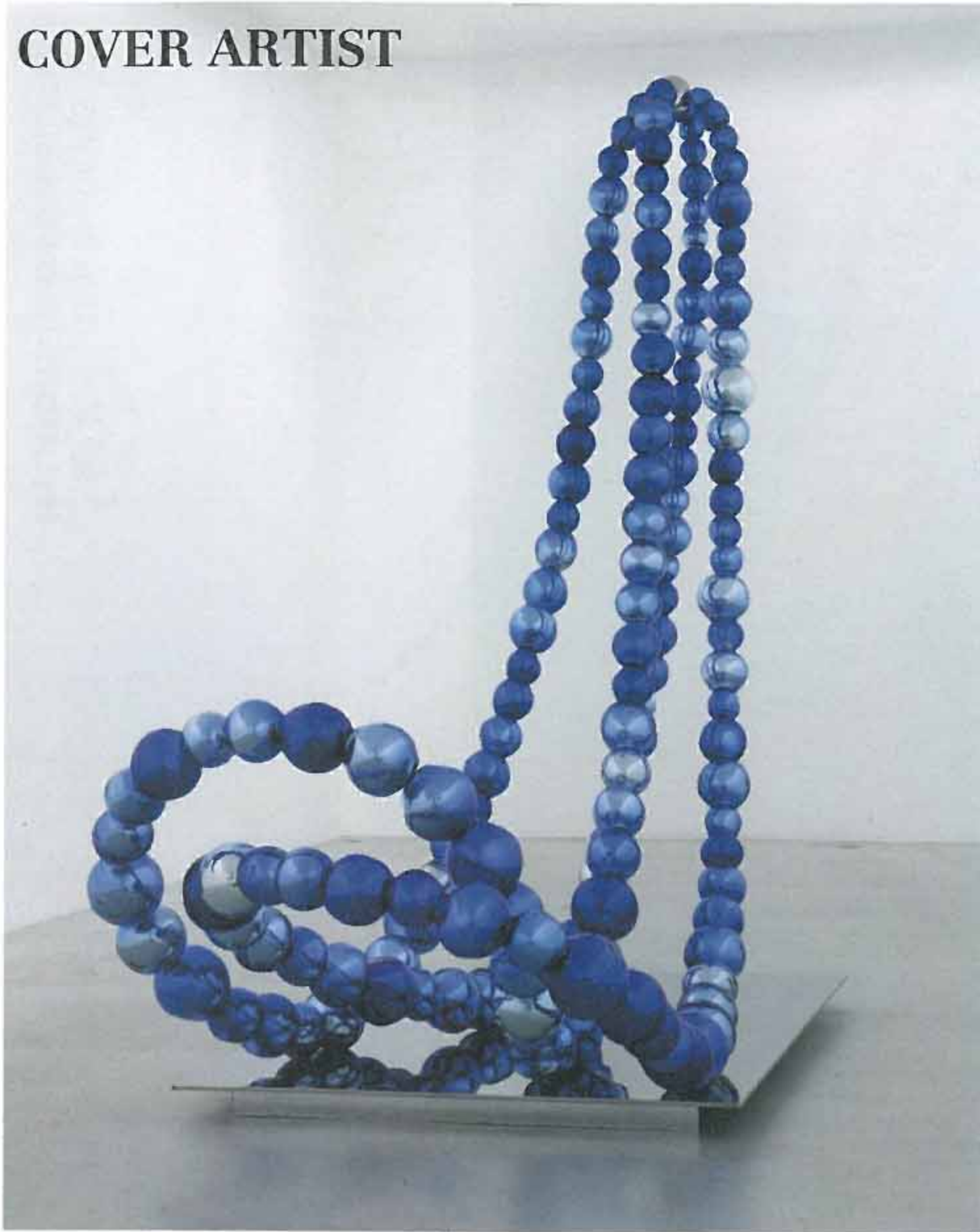


PHOTO: GUILLAUME ZICCARELLI © COURTESY GALERIE PERROTIN / 사진 제공: 국제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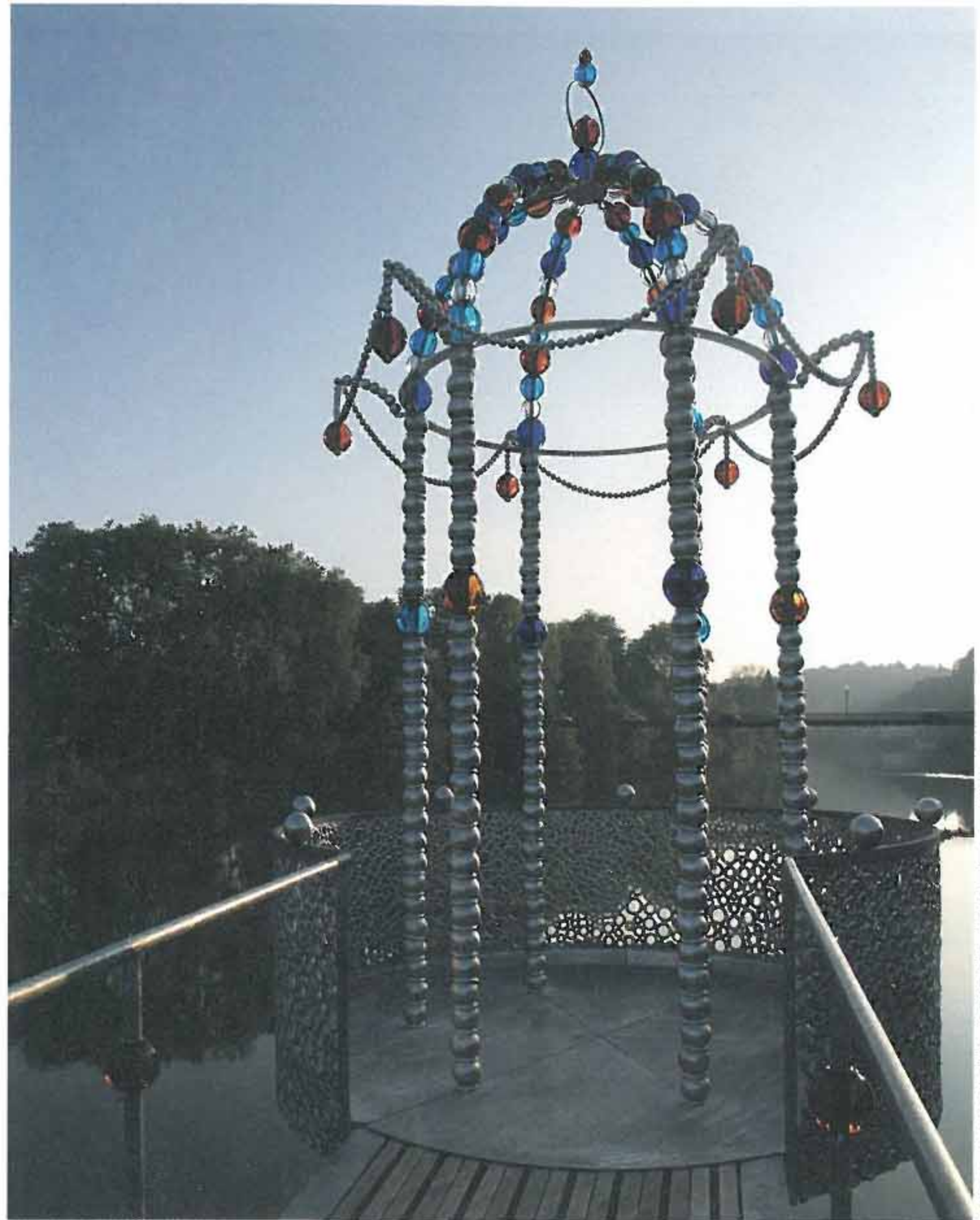


PHOTO: JEAN-MICHEL OTHONIEL / 사진 제공: 국제갤러리

## 장미셸 오토니엘

빛을 증폭하고 굴절시키는 유리 소재는 장미셸 오토니엘의 작업에서 슬픔을 시적 환희로 바꾸는 도구가 된다.

글 한예준

(from left)  
*Les Lacets Bleus (The Blue Lacets)*, 2009,  
 Private collection.  
 View of the exhibition  
 "Les Noeuds de  
 Janus," Galerie  
 Perrotin, Paris, 2009  
*Le Belvédère et les  
 Lanternes de l'île  
 Barbe*, 2013  
 Permanent installation  
 for "River Movie,"  
 on Rives de Saône,  
 Caluire, Lyon, France

(왼쪽부터)  
 '야누스의 매듭들'  
 전시 전경, 갤러리 페로탱,  
 파리, 2009, <파란색  
 동얏줄>, 2009  
 <바르브 섬의 망루와  
 등불들>, 2013  
 프랑스 리옹 손강변의 영구  
 설치 작품.

당신이 만약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프랑스 아티스트 장미셸 오토니엘(1964~, 생테티엔 태생)의 작품과 마주한다면 그 채색된 무라노 유리 조각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저 꿈처럼 스칠 뿐 감정이입 같은 건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겉보기에 화려한 작가의 작품에 슬픔의 정서가 배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화려한 비주얼이 오히려 우수에 흔들리는 눈망울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장미셸 오토니엘은 어린 시절 사제의 길을 꿈꾸던 한 남성을 사랑했고, 종교와 사랑 사이에서 번뇌하던 연인이 결국 비극을 선택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 작가의 이런 트라우마는 예술을 치유 행위로 받아들이게 했다. 그의 작품 중에서도 구슬 목걸이 형태를 한 유리 작품은 유기적이면서 증식하는 세포를 연상시키는데, 이는 사물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며 변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이다.

1991년 독일 카셀 도큐멘타에 참가하여 이름을 알린

그를 일약 스타로 만든 것은 2000년 프랑스 지하철 역사 100주년을 기념하여 파리 팔레-루아알-뤼제 뒤 루브르 지하철역 출구에 설치한 작품 <여행자들의 키오스크>였다. 이후로도 작가는 역사적인 장소와 소통하는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풍경을 치유하는 시적 오브제로 발전시켰다. 최근에는 프랑스 리옹 손강변의 대규모 재정비 사업에 참여, 고대 로마시대 신관들의 은신처이자 박해받은 기독교도들의 피난처였던 바르브 섬에 <망루(Belvedere)>와 <등불들(Lanternes)>이라는 작품을 영구 설치했다. 역사적 장소와 대화를 나누는 그의 작업은 베르사유 궁과의 다음 프로젝트로 이어질 예정이다. 17세기에 지었으나 1999년 폭풍으로 파괴된 베르사유 궁의 'Water Theatre Grove'를 위해 조경 디자이너 루이 베네슈와 함께 영구 설치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 태양왕 루이 14세의 춤을 연상시키게 될 3점의 매혹적인 분수 조각은 2014년 9월 그 모습을 드러낸다.